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76호 현대불교 29
2012년 2월 22일(음 2월 1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옳고 그름 따진다면 자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설법을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설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먼저 알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강렬한 그 마음이 참으로 가혹하게 있으니까 내 말도 순수하게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감격스럽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니까요.

여러분은 놓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성인들이 "우주의 근본과 태양의 근본, 천지의 근본도 내 마음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 너무나 절망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놓고 가기 어렵다는 거, 놓는다는 그 자체가 지금 말로 하자면은 보림(保任)을 하고 한데 놓친다는 뜻입니다. 놓쳐놓는 다. 한군데로 나고 한군데로 든다는 것이 바로 놓는 공부며, 모든 업을 무너뜨리는 공부며, 항복을 받는 공부며, 나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고, 나로부터 나오는 거를, 나로부터 들고 나는 거를 누구의 원망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남한테 따귀를 맞더라도 바로 내 주인공(主人空)에 의해서 그쪽을 움켜쥐게 해서 나의 따귀를 때리려니 생각을 하고 오히려 스승으로 아는 것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공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말을 해놓고 넘어가야겠기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전체는 지수화풍이 근원이 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서로 주고 받고 공식하는 것도, 또는 질량이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그 원천지는 바로 지수화풍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우주와 우리의 지수화풍으로 된 집이라고 해도 되고, 혹성을 집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몸뚱이를 집이라고 해도 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집입니다. 그 집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우리는 움켜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냇물로 하자면 원자와 전자 양 개체가, 양자가 한데 합쳐져서 중성자가 됩니다. 그 중성자는 바로 우리가 법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양·자유인·권도(權道)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도법(權道法)

을, 중용으로써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저는 십 년이고 이십 년이고 삼십 년이고 매다져 않았습니 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아신다면 양자가 한데 합쳐지면 중성자가 된다. 그래서 양면을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맡겨나라. 아무리 놓어도 두드러지는 법도 없고, 아무리 내내도 줄어드는 법이 없다. 그런데 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양자가 다 중성자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두 전체가, 태양계도 그렇고 달계도 그렇고, 혹성이든지 은하계든지 다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상제하 알아라 이겁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알지 못하는 것을 그저 남의 소리나 듣고서 한마디 내놓는다면 그것은 한 데 떨어지기가 쉽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사십구 년을 설하여 주신 그 뜻을 우리가 올바르게 거름으로 삼아서 그 속을 빼 볼 수 있고, 내 속과 그 속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 놓아야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내 주인공밖에 없다.' 하고 돌려 놓고 또 좋은 것은 '주인공, 감사하구나.' 하고 놓아야 됩니다. 남한테 일러줄 때 그 말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더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몸을 혹성이라고 한다면, 또 집이라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집 안에 중성들이 선원이든지 악업이든지 천차만별로 자기가 한 것만 치 인연이 돼서 한데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苦) 하나만 없으면 전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제법(四諦法)에 고

하나만 없앤다면, 그것을 녹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놓고 돌아간다면 다 없어지는 거죠. 집도, 멸도, 도도 말입니다. 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나오실 때 물주머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거 수십 억년 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없이 알리기 위한 선언입니다. 물에도 지수화풍이라는 근원에 의해 바로 생명들이 살고 있고 지수화풍이라는 그것도 생명이 있는 거고 흙이나 산도 그렇고 모두가, 안개도 이 물에서 올라가서 전부 우주간 법계(宇宙間法界)로 통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물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전부 올라갑니다. 흙과 물과 같이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일년에 세 번씩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물이

세 번씩이나 갈라졌다 오무라졌다 하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것이 화(化)해서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면은 안개는 우주간 법계의 통신망이 되는가 하면 우리 생명들에게도 전부, 즉 말하자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모든 것을 충만히 차원대로 연락이 통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수화풍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전력, 광력, 지력이 충분히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은 구름대로 이 세상에 냉기가 들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원력으로 화(化)하게 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원력으로 화(化)하게 되고, 또는 멸할 수도 있고 승화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능력들을 그 큰 구름덩어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큰 구름덩어리뿐만 아니라 조그만 것도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허무하다고 그러지만 그 물질이 아니라면 그러한 진화력과 그런 통신력과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 나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도 많아서 하 나도 가질 게 없어야 하 나도 버릴 게 없고, 버릴 게 없어야 하 나도 가질 게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발이다. 아니 밭은 데가 없노라."라고 하셨습니다. 밭이 정말 평평하게 생겨서가 아니라, 아니 밭은 데가 없고 손이 아니 닿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 아님이 없느냐" 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태양에도 해당이 되고 은하계의 별성에도 해당이 되고 달계에도 해당이 되고 온갖 혹성에도 다 해당이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해당이 되고 별계에도 해당이 되고 물에도 해당이 되고 어디고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아니 닿는 데가 없어야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중성자로 인해서 비서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즉 말하자면은 원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서 중성자가 되면 중성자라는 그 비서는 항상 조절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유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

30면으로 계속

영남 범음범패 전문 교육

전통사찰 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범음, 범패) 학인모집

- 1) 초급반 : 사물(요령, 목탁,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쇠송, 각단예불, 의식
- 2) 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관육, 천도재(49제), 각종의식
- 3) 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계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육바라, 사다라니바라
- 4) 고급반 : 운심계,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6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2장 (상시 모집)

* 본원은 종파를 초월한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승려후보성도 수강 할 수 있으며 승려수계제도, 포교원 지도면의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찰 안정사 강원

(사)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영남범음범패 교육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055)649-6711
팩스 055) 649-6712 HP : 011-874-6775

금강경 강의

홍법스님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금강경 기도와 관음기도로 그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저의 눈높이 만큼 금강경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12년 3월 8일(목)

오전 10:00~12:00 1회
오후 19:00~21:00 2회

준비품 : 금강경 책자와 필기구

대 상 : 누구나 공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누구나

동참금 : 월 5만

* 설법 내용으로도 좋습니다.

2. 필 명상 수련만 모집
3. 매일 금강경 기도와 관음기도
4. 빙의 현상, 현대 불치, 난치병 치료
5. 자기 원불과 기도방법 알려 드립니다.
6. 생활, 인생상담 및 제반사항 상담
7.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춤, 오공양 작법, 태평소 대행

부산 진구 부암 3동 458-141
참회 관음기도도량 홍법사
향림 홍법 합장
문의 : 010-2570-8512

제1회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학인모집 (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범불승으로서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 의 내 용

1. 기초 : 삼위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석, 종송,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 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육, 신중칭, 상용영반, 관음시식, 고혼소, 봉칭(꽃소리), 39위, 복칭계, 고혼칭, 현좌계, 진령계, 칠연사구성, 가영, 향화칭, 고아일심귀명경례, 긴소리, 짧은소리
3. 고급 : 사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생, 생전예수제, 수륙제, 종사이운, 괘불이운, 종사영반 화쟁, 공덕계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 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2장
- 장 소 : 김해시암연합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 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호 010-4466-3575

창 종 5 주 년 기념 대법회 공고

본 종단에서는 창종 5주년 맞아 충남 금산에서 결식노인 및 불우 중증장애인 돕기, 국민안안 및 경제 살리기 영산대재를 불기 2556년(서기 2012년)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불교계의 모든 종단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든 동참 신도님 조상 무료천도) 동참하시는 모든 종단 대덕스님과 사찰의 주지스님께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버스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으며 참가 신도님들께는 본 종단의 선물도 증정하겠습니다.

행사의 준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문의하셔서 상의 바랍니다. (동참금은 결식노인 및 장애인의 무료급식을 위해 쓰겠습니다)

불기 2556년 2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불교연합회 조계종 총무원장 해일 합장
공익법인 함께 살리는 장애인 운동본부 대표 김성술

직통 HP 010-2383-5533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 주인공에 놓아야 합니다.

29면에서 계속

분도 운전수가 뿔뿔이를 끌고다니다면 그 기쁨은 자동적으로, 아무 고정 관념이 없이 술술술술, 24시간 살아나가는 데도 자꾸자꾸 화(化)해서 잘나잡나 이렇게 살죠? 내가 항상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그거는.

물론 은하계에 속해 있는 태양도 있는가 하면 태양의 도움을 받고 있는 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아는 것을 왜 얘기하나 그러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인간의 마음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또 그보다 더 묘하고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 모든 생명들의 이 고편제는, 짐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 이 고편제나 짊어나 수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 나가는 데도 먹고 먹히고, 쫓고 쫓기고 이렇습니. 그러나 인간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런 우주세계에도 별성과 별성이 서로 쫓고 쫓기고, 먹고 먹히고 또 흠성들도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으면 작은 것대로 차원에 따라서 먹고 또는 먹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성자의 문제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거고, 이 우주의 근본의 원리도 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중성자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내서 여러분이나 과학자들한테 알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보여야 책정을 해서 연구를 할 텐데 보이지 않습니다. 중성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때에 조그마한 것들이 접착력하는지, 어느 때에 폭발이 될지, 우리 사는 데에도 그렇듯이 그런 문제들이 요소요소해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가 돌아가는 이치가, 진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공부를 아니 하면은 아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팔방이요, 평은이요, 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상세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은하계에서도 물론 별이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빛깔도 없고 붉고 이렇게 서로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차원이 있듯이 그것도 차원에 따라서 강렬하게 빛을 내는 것이 있고 희미하게 빛을 내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별이 차원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것은 힘입니다. 그리고 사 람이 빛이 없어지면, 늙은 것이 돼서 고편제를 세 고편제만 벗으면은 다시 별성이 강렬해지고 다시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별성 하나가 여섯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아홉 개를 만들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바로 구십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별성은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은하계의 별성만이 그런 게 아니라 태양도 강렬하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축소

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크게 승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면 미신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자기'입니다. 지금 상반되는 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계에서도 그렇게, 즉 말하자면 한 원자가 즉, 중성자에 관한 것이 있으면 이 원자가 그걸 조절을 해서 비서 노릇을 잡습니다. 이걸 인간과 같습니다. 모두가 같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깨달으면 전체를 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다면 또 구름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구름, 가스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수만 가지 지금 과학적으로 이름을 따지고 본다면 수소나 탄소나 이산화탄소나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우리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눈, 귀, 코 이름이 다릅니다. 입도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섯 가지가 다 포함해서 돌아

그러면은 그 가스가 한 가지 두 가지만 아니라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아홉 가지까지 화(化)해서 진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그 태양의 뜨거운 걸 조절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생명체가 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화풍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나 왔고, 지수화풍이 길러주기도 하고... 생명을 낳게 해가지고 길러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는 건 전체 지수화풍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도 지수화풍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사는 것도 지수화풍입니다. 바람과 더불어 전체가 화해서 공기가 되는데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각각 따져놓고 본다면 물이 없어도 우리 살 수가 없고 불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안에 있으면 바람에도 있어, 지금 안에 공장장이 많고 공장이 많아. 위 공장이니 장 공장이니 방광 공장이니 책장 공장이니, 이자 공장이니 하는 그

는 거, 이런 것도 모두가 태양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태양이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은하계가 될 수 있고 그 전체 한마음이 내 마음의 근본이 될 수가 있고, 내 근본이 바로 저 은하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아님이 없는 것이요,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돌이 아니라, 그래서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나라. 양자가 합쳐진다면 바로 그게 주장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불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불성은 기다랗게 작대기도 뻗다가, 뚱그렇게도 뻗다가, 아주 유연하게, 대가리만 딱 들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재권. 자재권을 가졌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의 어느 거든지 내가 아니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꽃 한 송이, 저런 나무 한 그루, 어떠한 식물이나 동물이나, 여러 가지로 말해서 일체 생물이

양면을 다 나와만이, 양 개체를 다 나와만이 참나를 발견한다는 얘기도.

지금 내가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엄식으로써 못쳐진 인연 때문에 눈이 안 보여, 이 의식만 가지고서 죽어서 돌아다니다가 새 동우리로 안 들어가나, 개구리 동우리로 안 들어가나, 뱀 소굴로 안 들어가나, 소로 안 들어가나, 보질 못하니깐 짝짓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러는지 새가 그러는지 몰라. 뱀이 그러는지 짐승이 그러는지 그걸 분간을 못하니깐 그냥 그리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한 철만 나고 달리 화(化)한다면 좋은데 거기에 물이 들어서 의식이 물질로만 보고 물질로 사는 법만 알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고, 쫓아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세계생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 그 새끼로 태어나서 어미가 되고 어미로 태어나서 또 그 새끼가 되고, 벗어날 수가 없으니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르면 죽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무엇이 인간으로 그 애를 쓰고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이 또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그건 헛겁니다. 헛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갖고 나온 인간이, 수십억 년을 거쳐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진화를 해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않습니까? 응? 세상에 어찌 그냥 갈 수 있었습니까? 그 도리를 알고서야 어찌 그냥 갈 수 있었습니까?

내가 태양계도 그렇게 커질 수 있고 별성도 커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악으로 커지면 큰 일이고 선으로 커진다면 그것은 좀 낫지. 응?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통이 속에도 수십억 마리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별성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내 신장 한마음에 의해 그 수십억 마리가 보살로 화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천백억 보살이 화해서 전자로서 원자를 끼고, 원자를 끼고 바깥으로 들러날락하면서 용도에 따라서, 누가 이 보살을 청하면 이 보살로 화하고, 저 보살을 청하면 저 보살로 화하고, 지장을 찾았다면 지장으로 화하고... 그러니 지장이 따로 있고, 관세음에 따로 있고, 신장이 따로 있고, 독성이 따로 있고, 용왕이 따로 있고, 자신이 따로 있고, 조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마음에서 바로 모두가 화해서, 그 별성이 전부 보살로 화해가지고 들고 나면서 멀다 하지 않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89년 3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지금 말로 하자면 보름을 하고 한데 뭉쳐놓는다는 뜻입니다.

한군데로 뭉쳐놓는다.

그것이 바로 모든 업을 무너뜨리는 공부며 나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믿고

나로부터 들고 나기에 누구의 원망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남한테 따귀를 맞더라도

바로 내 주인공에 의해서 상대를 움죽거리게 해서 나의 따귀를 때리려니 생각을 하고

오히려 스승으로 안다면 그것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참다운 공부입니다.

간다 이겁니다. 조금씩은 다르지요. 듣는 거 다르고, 보는 거 다르고, 냄새 맡는 거 다르고, 말하고 맛을 아는 거 다르지만 그러나 한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마음을 조절한다면 그거는 바로 돌이 아닌 까닭에 역할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하면 그 도리를 몰라서 조절을 못한다면 수십억 년 후에는 어떻게,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나갈지, 이런 문제들이 빨리 닥칠지 늦게 닥칠지는 아무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 죽느냐, 나이가 들어서 죽느냐, 젊어서 죽느냐 책정할 수 없듯이. 또 그것도 그 거지마는 크게 평장을 하느냐 적게 축소가 되는냐는 것도 그 가스의 탓이요, 중성자의 탓이란 얘깁니다. 그러면 모든 것, 즉 구름, 가스가 전체의 활력이 크다는 거, 안개와 구름이 활력이 크다는 거, 즉 말하자면 은하계에서도 지금 시냇물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진 물과 같은 안개라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마는 그걸 수소라고 이름 해도 됩니다.

공장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가지고 나가는 화장이, 선장이 바로 운전수나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를 이끌어가는 운전수 말입니다.

지금 구름이나 가스가 물이나 올려주면 내려 오고 내려주면 올라가면서 그렇게 묘법이 수없이 천만 가지로 나고, 내려올 때에 천만 가지로 그렇게 통신이 되고, 사람들을 길러주고 생명을 낳게 합니다. 그 차원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묘한 법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고장마다 닿지 않는 데가 없고, 닿지 않는 데가 없고, 내 몸 아닌 데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부처님 말씀의 뜻이 내가 태양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저기를 육안으로 봐서 보는 게 아니라 태양이 곧 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멀하거나 터지지 않게 심안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비유하자면 아주 큰 하마 같은 입이 조그마한 흠성과 별들을 집어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을 하

다 될 수 있는 거. 그러니 살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세상에도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이 유(有)·무(無)를 한데 합쳐서 한자리라 이거야, 한 자리. 그래서 바리때의 공양을 한 그릇을 잡았고, 앉으셨다 이거지.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도리를 공부를 안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苦) 하나만 없으면 된다 이런 것은 고 하나만 없으면 전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천상 인간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랬거늘 선(善)으로 나간다면 악으로 나간다면, 이걸 잘못된 거고 저런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이 공부 못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것은 그른 일이다 이렇게 배우신다면 이 공부는 영 못 합니다. 자유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른 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잘되는 걸로만 끝이 나는 것도 아니라, 잘되는 걸 취하다 보면은 어딘가가 잘못되는 수가 있고, 잘못되는 걸로 취하다 보면 잘되는 수도 있어.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들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익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